

1 인류의 시대로

코끼리들의 홋카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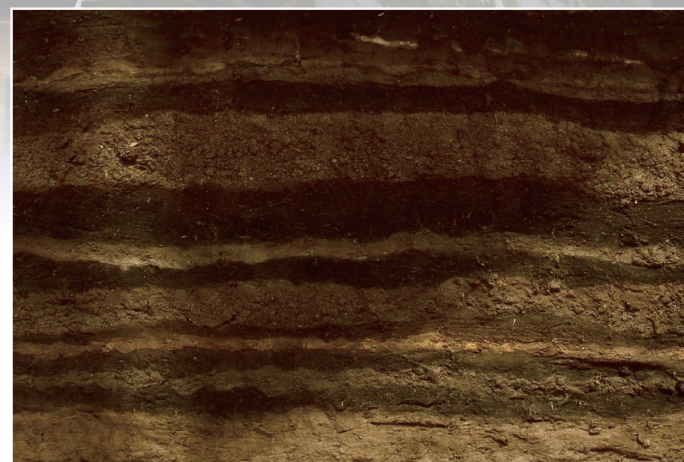
나우만 코끼리는 혼슈로부터 건너온 삼림을 좋아하는 남방계의 코끼리로 12만 년 전경에 홋카이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편, 매머드 코끼리는 사할린을 지나 아시아대륙의 북동부로부터 건너온 초원을 좋아하는 북방계의 코끼리로 4만 5천 년 전부터 2만 년 전경에 홋카이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2종류의 코끼리는 지구의 한랭 기후와 온난 기후의 반복 속에서 살기 좋은 장소를 찾아 북부 지방이나 남부 지방으로부터 홋카이도로 건너온 다양한 생물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홋카이도 대지의 기초는 지진이나 화산 활동 등을 동반한 격렬한 지각변동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또, 홋카이도의 다양한 동식물을 자라게 하는 자연환경은 오랜 지구의 역사 속에서 가장 새로운 시대인 제4기에서의 한랭 기후와 온난 기후의 반복 속에서 크게 변했습니다.

예를 들어 삿포로의 남쪽에 있는 기타히로시마시 주변에서는 이 기후 변동을 나타내는 화석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약 120만 년 전의 지층에서는 차가운 바다에 살던 스텔러바다소 등의 대형 동물의 화석이 발견되었으며 이 화석을 통해 당시의 홋카이도가 한랭 기후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약 21만 년 전의 지층에서는 따뜻한 바다에 사는 조개의 화석이 발견되고 있어 온난한 기후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홋카이도는 이처럼 기후가 변화하는 가운데 한랭 시기에는 아시아대륙이나 혼슈와 육지가 연결되었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사할린과 연결된 북쪽의 아시아대륙의 북동부부터 매머드 코끼리나 바이슨(들소) 등의 동물이 이동해 왔습니다. 한편 남쪽의 혼슈로부터 나우만 코끼리와 메갈로세로스 큰사슴 등의 동물이 홋카이도로 이동해 왔습니다.

인류는 이러한 동물들을 쫓아서 3만 수천 년 전에 홋카이도로 이동해 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인류의 문화는 주로 돌로 만들어진 도구를 사용했으며 이 사실로부터 구석기문화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이윽고 1만 수천 년 전에는 토기를 사용하는 조몬문화가 시작됩니다. 조몬문화가 시작할 무렵, 기후는 온난해지면서 빙하기는 끝을 맞이합니다. 조몬문화의 사람들은 토기나 마제 돌도끼, 활과 화살 등을 사용하여 수렵, 어로, 채집을 하면서 정주하게 됩니다. 조몬 문화의 후반에는 환상 열석이나 주제묘 등의 집단 묘지, 토우나 석봉 등, 기원이나 축제와 관련이 있는 것들도 만들어집니다. 조몬문화는 금속기가 사용되기 시작하는 2천 수백 년 전까지 약 1만 년간 지속하였습니다. 홋카이도에서는 이렇게 인류의 역사가 시작했습니다.



거대 해일(쓰나미)의 흔적

홋카이도 주변에는 태평양 플레이트, 유라시아 플레이트, 북아메리카 플레이트의 3가지 플레이트가 있어 홋카이도는 지진이나 해일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입니다. 이 자료는 도카치 지방의 해안의 습지로부터 채취한 약 3,500년 전부터 현대까지의 지층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지층의 줄무늬는 해일에 의해 옮겨진 바다의 모래와 화산재와 흙이 겹친 것입니다. 연대를 조사한 결과 큰 해일이 약 400년에 한 번의 빈도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는 바로 다음 해일이 언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조몬문화 —사람들의 기원—

조몬문화의 후기부터 말기(4,000~2,300년 전)에는 그때까지 지속한 따뜻한 기후가 점차 추워집니다. 이 변화는 자연환경이나 사람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지름 30m를 넘는 환상 열석이나 낮은 제방을 둘러싼 “주제묘” 등의 집단 묘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토우나 석봉, 다양한 장식품도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들은 조몬문화 사람들의 기원이나 축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